

2015년 12월 7일 오늘의 아침편지

'사람'이 중심이다  
'人'が中心だ

"저 사람 글이  
"あの人の文章が

그냥 글이 아니구나.  
ただの文章じゃない

혼이 담긴 글이구나. 어쩌면  
魂が詰まった文章だね。ひょっとして

저 사람의 삶이 나에게도 꿈이 될 수 있겠구나."  
あの人の人生が、私にも夢になることができるよね"

그 꿈에 공감하고 손잡아주는 사람을 많이  
その夢に共感して、手をつかんでくれる人にたくさん

만나야 한다.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会わなければならない。お互いの価値を尊重する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세상에 없던  
二人に会った時、世の中になかった

제3의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다.  
第3のことを想像できる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다.  
その中心に'人'がいる

- 고도원의 《혼이 담긴 시선으로》 중에서 -  
- コ・ドウオンの〈魂が詰まった視線〉で -

\* '사람'이 중심입니다.  
\* '人'が中心です

그러나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しかし、ただの人ではありません

'혼이 담긴 사람', '사랑의 사람', '꿈의 사람'이  
'魂が詰まった人', '愛の人', '夢の人'に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서로 만날 때  
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のような人が、お互い会うとき

엄청난 시너지를 낳고 세상을 움직이는  
とてつもないシナジーを生み、世の中を動かす

제3의 것이 창조됩니다.  
第三のことが想像されます。

결국은 '사람'입니다.  
結局は'人'です

2015년 12월 8일 오늘의 아침편지

'어른'이 없는 세상  
'大人'がない世の中

어른이 된다는 것은  
大人になることは

일관성의 문제다. 말과 행동이,  
一貫性の問題だ。言葉と行動が

저번의 말과 이번의 행동이, 그리고  
この前の言葉と今の行動が、そして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일관성을 보이기  
以前の人生と以後の人生が一貫性を見始める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어른스럽다고  
時、その時漸く大人っぽく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어른이  
話すことができるのだ。大人が

없는 세상이다.  
ない世の中だ

- 윤선민의 《웁슬로 다이어리》 중에서 -  
- ユン・ソンミンの〈ワークスローダイアリー〉より -

\* 어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大人がないわけではありません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른이 귀해진 것입니다.  
信じて従うことができる大人が、貴重になるのです

어려다운 어른, 어른 역할을 하는 어른을 만날 수가  
大人らしい大人、大人の役割をする大人に会うことが

없다는 것, 이 시대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出来ないこと、この世の中のつらさでもあります

언제나 일관성의 중심을 잡아주는  
いつも一貫性の中心をつかんでくれる

사랑과 존경의 어른이  
愛と存在の大人が

그립습니다.  
懐かしいです。

어른  
[명사]  
大人: 大人. (=성인(成人))  
地位や親等が上の人; 上長.  
結婚した男女.

20151208.txt

저번 (這番)

[명사]この前; 先ごろ; その節. (=지난번)

2015년 12월 9일 보낸 편지입니다.

쉬는 용기  
休む勇氣

어리석은 말 같지만  
ありふれた言葉のようだが

토머스 머튼이 정확하게 꼬집었다.  
トマス・マートンが正確に皮肉った

숨통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잠시 아무것도  
息の根が止まらないためには、しばらく何も

하지 말고 편안히 앉아있어야 할 때가 있다.  
せず、平安に座らなければならない時がある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일에 몰두하는 사람에게  
自身を顧みず、仕事に没頭する人には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쉬는 것보다  
何もせず、じっと座って休むことより

어려운 일이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難しいことはない。彼ができる

가장 힘들고 용기 있는 행동은  
一番つらい勇氣ある行動は

쉬는 것이다.  
休むことだ

- 앨런 패들링의 《느긋한... 제자》 중에서 -  
- アラン・ファディングの<のろまな弟子>より -

\* 쉬는 것도 용기입니다.  
\* 休むことも勇氣です

다짐하고 결심해야 가능합니다.  
誓って、決心して可能です

내가 쉬면 모든 것이 멈출 것 같은 불안감,  
私が休めばすべてのことが、止まるような不安感

일에 몰두해야만 살아있는 것 같은 강박감,  
仕事に没頭しさえすれば、生きていることのような強迫感

그런 습관과 생각들에 오래 갇혀 있으면  
そのような習慣と考えに、長く閉じこもっていたら

끝내 쉬는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遂に休む勇氣が出ません

'쉬는 용기'와 '사는 용기'는  
'休む勇氣'と'生きる勇氣'は

서로 통합니다.  
お互い通じます

꼬집다

[타동사]

(살을) つねる.

(빈정거림) 皮肉を言う; 人の弱点をつく.

숨통 (一筒)

[명사]

갈히다

[자동사] [‘가두다’의受け身] 監禁される; 囲まれる; 閉じこめ...

[생물] 息の根[緒]; 玉の緒; のど笛. (=기관(氣管))

生存などを保つのに大切な部分.

다짐

[명사]

念おし; 駄目を押すこと.

誓い; 確約.

2015년 12월 10일 보낸 편지입니다.

잘 사는 것  
ちゃんと生きること

과연 우리는  
果たして我々は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幸せになることができるか?

행복론은 사실 고대 그리스 이래  
幸福論は実際、古代ギリシア以来

서양철학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西洋哲学の中心主題でした。

플라톤의 '크리톤' 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プラトンの'クリトン'にはこのような言葉が出てきます

"중요한 것은 그저 사는 게 아니라,  
"重要なことは、ただ生きることではなく

잘 사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ちゃんと生きることだ"ソクラテスが

한 말입니다.  
言った言葉だ

- 기시미 이치로의 《지금 여기서 행복할 것》중에서 -  
- 岸見一郎の<今ここで幸せなこと>より -

\* 잘 사는 것!  
\* ちゃんと生きること!

소크라테스뿐만이 아닙니다.  
ソクラテスだけではありません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我々の母、父、祖父、祖母が

귀에 못이 박히게 했던 말입니다. 오랜 빈곤에서  
耳にタコができるくらい言った言葉です。長年の貧困から

이 나라를 일으킨 시대적 구호이기도 했습니다.  
この国が始めた時代的スローガンでもありました。

'잘 살아 보자!', '잘 살아야 한다!'  
'ちゃんと生きよう!', 'ちゃんと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

이제는 하나를 덧붙여야 합니다.  
これからは、一つ付け加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바르게, 잘 살아야 한다!'  
'正しくちゃんと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

20151210.txt

'바르게, 잘 살아 보자!'

'正しく、ちゃんと生きよう!'

주제 (主題)

[명사]主題; テーマ.

구호 (口號)

[명사]叫び声; 掛け声; スローガン.

2015년 12월 11일 보낸 편지입니다.

사무침  
惻惻

하늘 끝, 달은 사무침이다  
空の終わり、届いた惻惻だ

함께 길 떠난  
共に道を歩いた

길벗이었는데  
道連れがいたが

생의 어느 길목에서  
人生のある街角で

엇갈려 헤어졌다  
すれ違って分かれた

모든 것을 제쳐놓고  
すべてのことをさておいて

오로지 길벗을 찾았어야 했는데  
ひたすら道連れを探さ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が

길 잃고 저잣거리를 떠돌았다  
道に迷い、市場をさまよった

한 생을 바람처럼 떠돌며  
一生涯を風のようにさまよいながら

돌고 돌아선 길  
まわりまわった道

이제 되돌아갈 길이 아득하다  
これからは戻る道が、遥かだ

- 서경애의 시집 《그대 나의 중심이여》에  
- シン・ギョンエの詩集《あなたは私の中心》に

실린 시 〈사무치다〉 (전문)에서 -  
掲載された詩〈身にしみる〉(前文)より -

\* 아득한 그리움과  
\* 遙かな懐かしさと

사무침이 하늘에 달을 때가 있습니다.  
惻惻が、空に届くときがあります

어찌할 방도가 없어 하늘만 쳐다볼 뿐입니다.  
どうすることなく、空だけを見つめるだけです

그렇다고 주저앉으면 안됩니다.  
そうだとすると、座り込んではいけません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もう一度立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

다시 사랑해야 합니다.

もう一度愛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새로운 길을 찾아서!

新しい道を探して!

새로운 꿈을 안고!

新しい夢を抱いて!

そくそく

【側側・惻惻】

《トタル》(いたましき・同情などを)身にしみて感ずるさま。

닿다

[자동사]

a(접하다) 触れる; 接する; 触る; (手足・頭などが)...

(형편이) (都合が)つく.

(도착하다) (目的地に)着く; 届く; 至る.

길벗

[명사] 道連れ. (=길동무)

길목

[명사]

道の要所.

街角.

엇갈리다

[자동사]

行き違う; 行き交う; すれ違う; 入れ違う.

食い違う.

おいて [措いて] 발음 재생

( '...を~' 의 꼴로) 이외에; 제외하고; 제쳐 놓고; 그만두고.

저잣거리

[명사] 市場町; 店が立ち並んでいる通り.

아득하다

[형용사]

遙かだ.

(멀다) (距離・時間的に)はてしなく遠い.

(막막하다) 漠然とする; めどが付かない.

2015년 12월 12일 아침편지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박서유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パク・ソユ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나를 행복하게 하는 시간  
私を幸せにする時間

거실 바닥에 엎드려  
リビングの床に伏せて

햇볕을 쬐면서 도우코는 자신이  
日向ぼっこをしながら陶子は自分が

전생에는 틀림없이 고양이였을 것이라고  
前世は、間違いなく猫だったと

생각한다. 발치에는 몸을 동그랴게 만 검둥이가  
思った。足元には、体を丸めたクロが

누워 있고, 오디오에서는 케니 지가 흐르고 있다.  
横になって、オーディオからは、ケニー・Gが流れている

가끔, 문득 생각이 났다는 듯이 홍차를 마시고,  
時々、ふと思い出したように紅茶を飲んで

넓적하고 무거운 여성 잡지를 팔락팔락 넘긴다.  
平たく重い女性雑誌を、ぺらぺらとめくる

아, 기분 좋다.  
あ、気分がい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다.  
時間が少しずつ流れていく

- 에쿠니 가오리의 《장미 비파 레몬》 중에서 -  
- 江國香織の「薔薇の木琵琶の木檸檬の木(邦題)」より -

\* 나에게 주어진 여유 있는 시간,  
\* 私に与えられた余裕のある時間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에 꼭 하고 싶은  
少しずつ流れていく時間、その時間に必ずしたい

혼자만의 휴식법이 있어야 합니다. 차 한 잔도 좋고,  
一人だけの休息法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お茶一杯でもよく

친구와의 수도도 좋고, 밀린 잠을 실컷 자는 것도  
友だちとのおしゃべりでもよく、たまった睡眠を十分とることも

좋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 몸도 마음도,  
よいです。こんな時間があつて体も心も

머리속 생각조차도 기분 좋게 흘러갑니다.  
頭の中の考えさえも、気分がよくなります。

거실 (居室)

[명사] 居室; 居間; リビングルーム.

바닥

[명사]

(평평한) 平らな表面; 平面; 床.

(그릇·신 따위의) 底.

(고갈) 払底すること; 品切れ; 種切れ.

엎드리다

[자동사]

四つんばいになる; 腹ばいになる; 伏せる; うつぶせる.

平伏する; ひれ伏す.

햇볕

[명사] 日; 照り; 天日; 陽光(\*한문투의 말씨). [준말] 別. (→햇빛)

쬐다

[자동사] 照る; 照り付ける.

[타동사] (日·火に) 当たる; 晒す; 浴びる. (=쬐이다')

발치

[명사]

寝るときの足下の方. (⇨머리맡)

場所や建物の下端や端.

足のある方.

수다

[명사] 口数の多いこと; 無駄口; おしゃべり.

검둥이

[명사]

黒犬の愛称: くる.

肌色の黒い人.

[속어] 黒人; 黒んぼ.

넓적하다

[형용사] 平たい; 扁平だ; 平べったい. [작은말] 납작하다.

雑誌をぺらぺらとめくる 발음 재생

잡지를 팔락팔락 넘기다

밀리다

[자동사]

(物事が) たまる; 渋滞する; 滞る; つかえる.

[ '밀다' の受け身 ] 押される.